

경제

이코노 & 비즈 피플

광주경영자총협회 유희열 회장

“노사 공동번영 합리적 조정자 역할”

맞춤형 사업장 방문교육... 산업평화 구축 전력
금요조찬 포럼 활성화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유희열 회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진행한 금요조찬 포럼을 더욱 활성화해 지역경쟁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광주경총의 역할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평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사 간 중재 등 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를 실천해왔다”며 “이를 이어 노사 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실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취임한 유희열 광주경영자총협회 제13대 회장은 “과거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가 이제 협력과 상생, 공동번영의 시대로 변화했다”면서 “광주경총은 사용자 단체 지만 사측 입장만 내세우기 보다는 노사가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관계 안정은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를 위한 필수요소”라며 “7월 첫 도입되는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사갈등 조정 및 중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담 및 컨설팅, 맞춤형 사업장 방문교육을 병행해 지역 산업평화 구축에 전력할 방침이다.

그는 또 “인적자원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유희 회장은 “전임 회장들은 파업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노사협력을 호소하는 등 상생의 노사관계

를 실현해왔다”며 “이를 이어 노사 관계 안정과 산업평화 실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게 일자리 찾아왔다. 올해는 3200명의 일자리가 목표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우량 중소기업 발굴 등을 통해 청년층 실업 해소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 단순한 직업 앞선보다는 교육훈련을 통해 맞춤형 일자리 만들어 인적 자원 개발과 장기 고용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요조찬포럼은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호 텔무등파크 4층에서 열리는 전국 최고의 명품 포럼이자, 광주지역 노·사·민·정 소통의 장이다. 지금까지 1034회 열렸다.

광주 서중·일고, 중앙대를 졸업한 유희 회장은 광주지역 중견 기업인으로 세화IMC 회장과 세화기계(주) 대표이사, 아크로CC 대표이사 회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광주지역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지역인재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민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광주상의 부회장,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역경제기자 jwpark@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목표·영암서 故정주영 회장 추모사진전

현대자동차그룹(대표이사·오병욱 사장)은 21일~4월 3일까지 영암과 목포지역에서 故 정주영 명예회장 10주기 추모사진전을 개최한다. 21일 개막날 사진전에 140여점의 사진과 영상이 전시됐으며 500여명의 관람객들은 고인의 열정에 찬 모습을 둘러보며 대한민국 경제사에 남긴 고인의 발자취와 기업가 정신을 되새겼다.

〈상호금융 제공〉

현대기아차 중국 시장 판매 ‘순항’

2월중 전년동기비 37% 신장... 판매량 3위 ‘경총’

현대기아차의 중국 시장 판매가 순항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지난 달 중국에서 5만717대를 팔아 상하이볼크스바겐, 상하이GM에 이어 판매 순위 3위에 올랐다. 판매량은 작년 같은 달보다 36.7% 증가한 것으로, 1월에는 이보다 많은 7만2000여대를 판매하고도 경쟁업체에 뒤져 5위를 기록했었다. 시장점유율도 1월 5.8%에서 2월 6.7%로 0.9%포인트 높아

졌다. 기아차도 작년 2월보다 4.2% 늘어난 2만5008대를 판매해 9위를 달성하며, 최근 수년간 처음 10위권 진입에 성공했다. 점유율도 3.3%로 1월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기아차의 중국 내 판매 순위는 2007년 17위에서 2008년 15위, 2009년 및 2010년 각 13위, 올해 1월 12위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현대기아차가 2월 중국 시장에서 약진한 것은 경쟁업체들의 신차 출시가 주춤한 틈을 타 오히려 신차를 내놓고 판공 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의 위예동(아반떼HD의 중국형 모델)이 지난달에만 1만4811대가 팔린 것을 비롯해 투싼ix(6866대), 신형 엑센트(8041대) 등 신차들이 대부분 판매 호조를 보였다. 기아차도 포터에(7740대), 신형 스포티지R(3754대) 등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연협뉴스

무실적·폐업 법인 이달말까지 법인세 신고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청장 김형균)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인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중 폐업했거나 실적이 없는 일부 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10년 중 폐업을 한 법인이나 무실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도 반드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실적이 없는 폐업법인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할

때 신고 때 보다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매출액이 없는 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법인의 인적 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만 입력하면 신고할차가 종료되는 ‘간편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김광근 광주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장은 “폐업했거나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 과중한 세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폐업했거나 무실적 법인도 빠짐없이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지수 변동 따라 펀드·적금 투자비용 자동 배분

光銀 ‘KJB 적적 펀드& 적금’ 출시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KOSPI지수 등락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과 비율로 펀드와 적금이 납입액을 배분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달 22일부터 실시한다.〈사진〉

새롭게 선보인 ‘KJB 적적 펀드 & 적금’ 적립이체서비스는 KOSPI지수에 따라 적금과 펀드의 투자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상품으로 주가 상승시에는 펀드 투자금액을 줄이고 주가 하락시에는 펀드 투자금액을 늘려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특히 바쁜 업무와 가사일로 주가지수 변동상황을 매일 지켜보기 어려운 고객이나 주식이

저평가되었을 때 펀드투자를 늘리고 싶은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시간 제약 없이 받는 직장인이나 가정주부에게 최적의 금융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JB 적적 펀드 & 적금’ 적립이체서비스는 고객의 선택에 따라 3가지 형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수변동에 따라 펀드와 적금의 투자비율이 자동으로 배분되는 자동배분형, 펀드투자비율만 변경되는 펀드투자형, 고객이 자유롭게 투자비율을 선택하는 고객투자형 이체서비스가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자영업자 3분의 1 세금도 못내

‘매출 저조’ 납부의무면제자 152만명 달해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3분의 1 이상은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못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 규모가 영세한 간이과세자 중에서 2009년 한 해 매출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가 된 사업자는 무려 152만4537명에 달했다.

2006년 13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납부의무면제자는 매년 큰 폭으로 늘어 2007년 130만6627명, 2008년 147만7697명에 이어 2009년에는 드디어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9년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간이과세자)의 수가 435만1461명이므로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자의 비율은 35%에 달했다. 이는 자영업자 중에서 3분의 1 이상 매출이 너무 저조해 세금을 면제 받고 있다는 의미다.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 소매업, 숙박업이나 작은 점포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 등 서민들이 영위하는 업종에서 납부의무면제자가 많았다. 기업 구조조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 현실에서 장사가 안돼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서민들의 생계가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06년 400만명에 미치지 못했던 개인사업자의 수는 2007년 403만명, 2008년 421만명, 2009년 435만명으로 최근 수년 새 크게 늘고 있다.

연협뉴스

보험사 소송비용 지원 ‘소비자연대은행’ 출범

소비자관리찾기시민연대와 보험소비자연맹은 21일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무담보·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소송 피해자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비자연대은행이 해당 변호사에게 소송수임료를 지급하고 승소 후 변호사가 금융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으면 소송비용을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하면 된다. 이는 보험사의 일방적인 소송 납부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소송비용이 없어 권리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막으려는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사는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 등을 제기해 소비자를 스스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보험사의 이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소송 행태를 바로 잡고 법을 잘 알지 못하고 경제적인 여력이 없어 소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서민 소비자의 본격적인 권리 찾기 운동 차원에서 소비자연대은행을 출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연협뉴스

Advertisement for Geumssojang Hotel. Text includes: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부담없습니다!', '편안합니다!', '내집같은 편안함'. Contact info: 062-525-2111, www.geumssojang.com.